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63 (은 세상에 전파하리)	210 (나의 생명 드리니)	171 (오 거룩한 생명의 샘)	202 (구세주의 성심이여)

제 1독서 | 지혜서 1,13-15; 2,23-24

<하느님께서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 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화답송 |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좌)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우)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좌)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제 2독서 | 코린토 2서 8,7.9.13-15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5,21-43

Today's Gospel, <Mark 5:21-43>

When Jesus had crossed in the boat to the other side, a large crowd gathered round him and he stayed by the lakeside. Then one of the synagogue officials came up, Jairus by name, and seeing him, fell at his feet and pleaded with him earnestly, saying, 'My little daughter is desperately sick. Do come and lay your hands on her to make her better and save her life.' Jesus went with him and a large crowd followed him; they were pressing all round him.

Now there was a woman who had suffered from a haemorrhage for twelve years; after long and painful treatment under various doctors, she spent all she had without being any the better for it, in fact, she was getting worse. She had heard about Jesus, and she came up behind him through the crowd and touched his cloak. 'If I can touch even his clothes,' she had told herself 'I shall be well again.' And the source of the bleeding dried up instantly, and she felt in herself that she was cured of her complaint. Immediately aware that power had gone out from him, Jesus turned round in the crowd and said, 'Who touched my clothes?' His disciples said to him, 'You see how the crowd is pressing round you and yet you say, "Who touched me?"' But he continued to look all round to see who had done it. Then the woman came forward, frightened and trembling because she knew what had

happened to her, and she fell at his feet and told him the whole truth. 'My daughter,' he said 'your faith has restored you to health: go in peace and be free from your complaint.'

While he was still speaking some people arrived from the house of the synagogue official to say, 'Your daughter is dead: why put the Master to any further trouble?' But Jesus had overheard this remark of theirs and he said to the official, 'Do not be afraid; only have faith.' And he allowed no one to go with him except Peter and James and John the brother of James. So they came to the official's house and Jesus noticed all the commotion, with people weeping and wailing unrestrainedly. He went in and said to them, 'Why all this commotion and crying? The child is not dead, but asleep.' But they laughed at him. So he turned them all out and, taking with him the child's father and mother and his own companions, he went into the place where the child lay. And taking the child by the hand he said to her, 'Talitha, kum!' which means, 'Little girl, I tell you to get up.' The little girl got up at once and began to walk about, for she was twelve years old. At this they were overcome with astonishment, and he ordered them strictly not to let anyone know about it, and told them to give her something to eat.



<The Haemorrhaging Woman, Daniel Cariola, Oil on Canvas. 1998>

“그분을 밀쳐 대는이는 많지만 믿음으로 만지는 이는 적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설교집』 62,3,5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창세 12,1)> - 안소근 수녀님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떠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창세 11,27-32에는 ‘테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가득 채워진 모습이 아닌 텅 빈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어서 자식이 없었다고 되어 있고(창세 11,30),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칼데아의 우르를 떠났지만 하란에서 자리를 잡고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창세 11,31). 목적지에 도달하지도 못했고, 땅도 없고 후손도 없는 처지입니다.

빈손인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을 떠나라고,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창세 12,1-2).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희망을 가지고 땅을 찾아 떠납니까? 그런데 하느님은 후손을 먼저 주시고 그 후손에게 땅이 필요하니 다른 땅을 찾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던 곳을 떠나면 그곳에서 많은 후손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 이후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창세 12-50장에서 계속되는 성조사의 핵심은 그 약속이고, 약속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곧 길을 떠나 가나안까지 갔지만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에 벌어집니다(창세 22장). 약속이 성취되려면 이사악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악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가르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랐었고 그에게라도 희망을 걸려고 했지만 굳이 하느님께서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에게서 그의 후손들이 이어지리라고 다짐하셨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외아들을 바치는 것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더 큰 문제는 이사악에게 약속이 걸려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이사악을 죽이면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사악을 죽이라고 하신다면 당신 스스로 약속을 위협에 처하게 하시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로마 4,21).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을 믿습니다. 후손의 약속은 꼭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사악을 꼭 살려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하느님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면, 아무리 약속을 위협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따릅니다. 어떤 길을 통해서든 하느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야훼 이레’, 주님께서 마련하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듯이, 야곱도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기간을 머무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요셉도 이집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대로 반복되어 온 떠돌이 삶, 그것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였고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 떠돌이 삶 속에서 성조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도 하지만 큰 어려움들도 겪습니다. 나중에는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온 형들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집안이 이집트에 자리 잡고 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창세 37-50장).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르러,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나자 요셉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창세 50,19-20).

인간들의 손으로 엮어진 사건들 안에서 요셉은 하느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자신이 이집트에 내려오게 된 것도, 지금 이스라엘 집안이 같이 내려오게 된 것도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었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하느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집안을 찾아오시어 그들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이라고 믿으며 그때에 자신의 유골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이 유언은 성경의 중요한 단락들에서 기억됩니다. 탈출 13,19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는 순간 모세는 그 유언을 기억하며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 24,32에서는 영토 정복과 영토 분배가 모두 끝나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것을 전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요셉의 유골을 스켄에 묻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거기서 비로소 끝나게 됩니다. 빈손으로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이들, 그들이 성조들이었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성조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의 기원과 신앙의 기원을 설명했습니다.

조상들의 믿음에 대해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을 꼭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속에 죽어 갔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반겼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곳, 바로 하늘 본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히브 11,13.16).

공지 사항

1. 첫영성체 교리반 시작

다음주 주일부터 첫영성체 교리를 시작합니다. 첫영성체를 준비하는 “구진표, 구규린, 박유비, 박태오, 박리암, 정유라, 김제인, 김다니엘” 어린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청하며,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첫영성체 일시: 8월 4일(주일), 주일미사 중

2. 캔버라 한인성당 교적 정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관련 안내

양업 전산시스템에 신자분들의 교적을 등록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교적의 전산 등록을 원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입구 테이블 위에 마련된 박스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해주신 동의서는 스캔한 후 양업 시스템에 업로드 됩니다.

* 현재 한국에 있는 성당에 교적이 있거나 타 한인성당에 교적이 있는 분들께서는, 원래 교적이 있던 성당 사무실에 '교적증명서'를 요청하여, 캔버라 한인성당 이메일로 보내 주시거나 혹은 인쇄된 증명서 주임 신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자분들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이용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캔버라 한인성당에서는 해당 신자분의 교적을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6월 16일	유아·청소년: 18명	성인: 48명
6월 23일	유아·청소년: 18명	성인: 39명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6월 30일)	주정자 루치아, 김수현 수산나
다음주 (7월 7일)	이상명 다니엘, 이재희 루시아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6월 30일)	요한반
다음주 (7월 7일)	루카반

| 우리들의 정성 | (6월 22일 ~ 6월 28일)

봉 헌 금	\$209			
교 무 금	\$630			
권묘순	남궁영근	손재호	안영규	양명식
양홍석	이국원	장호훈	전인철	주정자
허준				

| 기도 지향 |

* 이원순 글라라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